



나는 다르게 살겠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들의 인생법

- 이나라 (D.CAMP 센터장) 지음
- 출간일 : 2014년 3월 20일
- 분량 : 304쪽
- ISBN : 978-89-97379-39-2 03320
- 값 14,000원

* 이 책의 저자 인세 중 일부는 [Creative Commons Korea\(CCK\)](#)에 기부됩니다

“재능이란 내 욕망, 내 관점을 끝가지 밀고 가는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용한 이들,
세상의 성공 공식과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
일가를 이룬 창조적 문화인부터 창업가 정신 충만한 혁신가들까지

창업전도사, D.CAMP 센터장 이나라가 전하는 우리 시대 챌린저들의 거칠지만 생생한 꿈의 지도

▶ 안정된 직장, 토익 만점, 서울대 수석 합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남다른 삶을 사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언제나 매혹시킨다. 이 책도 남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뻔한 성공 스토리는 아니다. 잃을 건 잃고, 견딜 건 견디면서 자기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지 않은 이들.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이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부딪친 이들의 이야기다.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업(業)으로, 욕망에 충실하게, 돈이 없어도 즐겁게, 고독마저 찬란하게, 미치도록 몰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이윤기, 장영희, 박진영, 레이디 가가 등 창조적 문화인이거나 박현주, 박병엽, 엘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등 혁신적 창업가들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삶과 일을 만든 이들이다. 저자는 이들을 챌린저라 부른다.

▶ D.CAMP ‘이 센터’, 대체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챌린저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다

이 책은 중앙일보 산업부 IT팀장,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으로 D.CAMP를 기획 운영하고 있는 저자 이나리가 직접 만나거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그들 삶의 나침반과 내면의 근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들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보냈던 삶의 과정은 가혹했고, 그들은 엄격한 스스로의 율법을 따랐다. 그래서 다른 자기계발서와 다르게 손쉬운 인생 성공 공식이 이 책에는 없다. 제 살 도려내는 아픔이지만 가족과 학교의 그늘을 벗어나고, 모두가 욕망하는 돈과 명성을 우습게 여기며, 힘들더라도 자기 밥값은 자기 벌며,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벗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자신의 인생을 내몬다. 거친 황야에서 맨몸으로 세상과 맞장 뜨라고 말하는 챌린저들의 율법은 가혹하다. 그래서 매혹적이다.

▶ 남의 기준에 내 인생을 구겨 넣지 마라

에고이스트, 가출, 탈학교, 의심, 투쟁, 고통 등 1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챌린저들의 삶의 율법에는 멋진 성공담 대신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의 도전과 좌절, 성공과 실패에 관한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가 있다. 거칠지만 생생한 꿈의 지도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은 접어두었던 자신의 욕망을 꺼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에 인생을 구겨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삶, 나의 꿈.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며 거친 황야에서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책이 될 것이다.

● 책 속에서

스탠퍼드대 박사후 과정에 있는 한 이공계 한국 유학생의 토로다.

“미국 교수들이 그래요. ‘인도□중국 애들은 창업하느라 바쁘는데 한국 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다’고요. 스탠퍼드가 어답니까? 실리콘밸리의 상징, IT 벤처의 산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열이면 아홉 귀국해 교수 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할 궁리부터 해요. 실패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 따위 털떨어진 짓으로 생각하죠. 그래서야 학점이 아무리 좋은들 이곳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최고 엘리트는 뭘 하나요? 창업이죠.” (13쪽, 프롤로그)

나도 큰 변화를 결행했다. 익숙한 세계를 떠나 창업과 혁신의 심장부에 뛰어들었다. 평생직장도,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는 그럴 듯한 명함도 사라졌다. 대신 챌린저의 삶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머릿속으로만 무수히 짓고 부수던 ‘그 무엇’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섰다. 많은 우려와 불신을 뚫고 우리나라 최초의 창업 생태계 허브 ‘D.CAMP’를 열었다. 박병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의 결단과 창업가정신 충만한 동료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들, 그리고 매일 D.CAMP를 채우는 체인지메이커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일을 꾸민다. 그럴 때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릿속에서는 폭죽이 터진다. 상상했던 그 이상이다. 미래가 어찌 될지는 모른다. 어쨌거나 나는 내 인생의 선택권을 되찾았다. (17쪽, 프롤로그)

명징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만족에 집중한다. 걱정은 미래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이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현재를 내팽개치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게 챌린저들의 대체적 생각이다. (28쪽, 에고이스트)

그런 행보의 뒷배에는 도저한 자신감이 있었다. 대학, 학위로 치장하지 않아도 실력만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는 두둑한 배짱. 그럴싸한 간판이 없다는 점은 한편으로 이들이 삶을 더 치열하게 사는 동인이 됐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과 학교, 사회에 두루 솔직했다. 듣기 싫은 수업 억지로 듣고, 남의 리포트 베껴 점수받기보다는 차라리 포기를 택했다. ‘공부가 중요한가, 졸업장이 중요한가’라는 해묵은 논쟁에도 한 칼에 답을 내버렸다. 남 눈에 그럴싸하게 보려 젊음을 낭비하는 일 따위 하지 않았다. (59쪽, 탈학교)

MIT에서 화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물론 생활비는 직접 벌었다. 개발도상국의 상수도 문제 해결에 골몰했다. 직접 인도로, 니카라과로 날아가 현장에서 부대끼고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물 문제를 풀려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가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중 벤처업계에 뛰어든 이유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동력’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레베카는 자기 인생의 2대 지침을 말해줬다. 첫째,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다. 둘째, 두려움은 바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긴다.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한 것도 높은 곳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란단다. (80쪽, 나침반)

“쉬우냐 어려우냐는 중요치 않다. 포인트는 언제나 옳으냐 옳지 않으냐이다.” 이처럼 뜻이 분명한 자는 쉬 흔들리지 않는다. 종교인에게 경전이 있듯 그에게는 선택의 순간 기준이 될 만한 삶의 나침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챌린저들에게 가장 큰 선택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념을 구현하며 살 것인가이다. (90쪽, 나침반)

그러니 젊은 날의 창조력과 호기심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다면 자기 안의 어린아이를 최대한 보듬고 시시때때로 되살릴 일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이 같은 욕망이 솟아오르면 이를 억누르기보다 ‘까짓것!’ 하며 발산할 필요도 있다.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은 스스로를 ‘어린애 같은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좋고, 새롭고, 근사하고, 재미있는 것들에 끊임없는 호기심을 느낀다. 또 이를 스스로럼없이 드러낸다. 맛있는 음식, 멋진 아이디어 앞에서 눈 반짝이며 감탄하는 모습은 대기업의 부회장이라기보다 새 장난감을 손에 쥔 소년만 같다. 바로 그런 열정과 유연한 태도야말로 취임 7년 만에 회사 매출과 주가를 각각 30배 가까이 끌어올린 원동력일 것이다. (118쪽, 재미)

어떤 이들은 학문이 아닌 춤, 노래, 그림, 연기의 재미에 푹 빠졌다. 부모와 학교로부터 더욱 지지 받기 힘든 영역이다. 사회적 존경은 물론 안정적 돈벌이도 여의치 않은 일. 누군가는 ‘머리가 아깝다’고 했고, 누군가는 ‘잘해야 기생’이라고 했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특하면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들은 기죽지 않았다.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비웃음, 부모의 한숨, 쏟아지는 질책을 달게 받았다. 못 견디게 좋은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장희는 노래를, 박재동은 그림을, 이원국은 발레를, 고두심은 무대를 지킬 수 있었다. (149쪽, 공부)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무협지가 따로 없다. 도원결의, 강력한 적, 분열과 반란, 극적 승리, 새로운 도전. 승부처마다 이들은 범인으로서의 따르기 힘든 해안과 배짱으로 새 길을 열었다. 누군가 말

하지 않았던가, 현대의 영웅은 ‘창업가(entrepreneur)’라고. (167쪽, 투쟁)

나의 챌린저들 역시 대부분 ‘고통의 사도’들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순탄한 삶을 산 이는 없다. 끼니를 거를 정도의 가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불안정한 육신과 정신적 외상. 혹은 꿈을 이루기엔 너무 많은 나이, 너무 못난 외모, 너무 초라한 학벌. 그런데 설적으로, 이 모든 결핍과 고난을 빼고는 그의 성취와 행복을 논할 수 없다. (183쪽, 고통)

현대로 올수록 불균질성이 갖는 가치는 커지고 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서구 대중문화는 이미 ‘균질화에 대한 반역’을 핵심 전략으로 삼은 지 오래다. 스타들 또한 육체적□정신적 흠을 감추기보다 캐릭터 완성의 화룡점정(畫龍點睛)으로 삼는 데 능하다. 그들의 ‘스토리’는 대개 그들의 고통이나 약점, 악의, 상처로부터 나온다. (208쪽, 스토리)

데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쨌건 춤 연습, 노래 연습에 몰두하던 그때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만난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다.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하고 가요계에 뛰어난 김형석은 예나 지금이나 가수들 사이에서 ‘교주’로 통하는 당대 최고의 뮤지션이다. “김건모, 신승훈 씨 안무를 짜고 하면서 형석이 형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붙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요. 운전기사 노릇, 심부름꾼 노릇 하며 일을 배웠죠. 형이 곡 만드는 거 옆에서 보고, 또 따로 연습해 가서 평가 받고. 학교는 거의 안 갔어요. 졸업 학점이 1.9였다면 알 만하죠.” (243쪽, 멘토)

● 저자 소개 : 이 나 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장으로서 국내 최초 창업생태계 허브인 ‘D.CAMP’를 기획하고 운영 중이다. 창업자들로부터 ‘이센타’라 불리며,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업자, 투자자는 물론 각종 지원기관과 미디어 등을 잇는 다리 역할도 한다.

재단 합류 전에는 언론계에 몸 담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기업가정신과 창업, IT혁명, 문화적 다양성, 창조성의 발현과 같은 주제들을 주로 다뤘다. 그의 칼럼은 전복적 사고와 특유의 글맛으로 인기가 높았다.

중앙일보 산업부 차장과 주말섹션 <위크엔> 팀장, 동아일보 <주간동아> <신동아>기자 등으로 일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각 분야 혁신가들과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다.그 만남들이 이 책의 뿌리가 됐다.

1969년에 태어나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스탠퍼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생활을 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활약했다. 지은 책으로 인터뷰집 《열정과 결핍》(2003), 문화비평서 《썰시봉 시대》(2011.조영남 공저) 등이 있다

● 차 례

| 프롤로그 |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chapter 1 【에고이스트】 요컨대, 내 삶이다

chapter 2 【가출】 기댈 언덕도, 피할 그늘도 없는 곳으로

chapter 3 【탈학교】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리다

chapter 4 【의심】 질문하고 파헤쳐라

chapter 5 【나침반】 크고, 분명하고, 남다른 꿈

chapter 6 【자유】 내 원칙은 내가 만든다

chapter 7 【재미】 재밌지 않으면 열정도 없다

chapter 8 【공부】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chapter 9 【일】 첫눈에 반한, 미칠 것 같은 그것

chapter 10 【투쟁】 전쟁터로 다시 달려가는 이유

chapter 11 【고통】 인간은 어떻게 위대해지는가

chapter 12 【스토리】 통념을 거스르는 단독자의 삶

chapter 13 【혁신】 다르게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chapter 14 【멘토】 닳고 싶은 사람, 결국 뛰어넘고 싶은 사람

chapter 15 【소울메이트】 그 사람을 가졌는가

chapter 16 【버티기】 잠룡의 고독을 견디다

chapter 17 【흔적】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 참고문헌 |